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지는 것에 너무 슬퍼도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8월 28일)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공모전' 활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 사태로 올해 예정됐던 불교계 행사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축소된 가운데,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각종 공모전이 활성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대면형태로 진행되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모전을 기획하거나, 매년 진행해 온 정기행사 중 공모전만을 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불교계 공모전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대중소통 창구는 물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취소돼 불자들에게 아쉬움을 전한 대표적인 행사는 연등회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었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지침을 수용해 전격 취소됐다. 다행히 연등회보존위원회

연등회, 음악공모전 첫 시행
나란다축제 · 월정사 백일장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 전환

가 매년 진행해 온 '전승 전통등 경연대회' 가 공모전 형태로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출품된 연등을 전시하는 자리가 마련돼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등 경연대회는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반 · 어린이 ·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제작한 연등을 접수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은 연꽃등과 팔모등, 수박등을, 어린이는 팔모등과 수박등을, 대학생은 연꽃등과 전통성을 잘 살린 등을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등작품은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시되며, 수상자는 소정의 상금과 2021년 연등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또 올해 연등회 음악 공모전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개인과 단체별 최대 3곡까지 응모 가능하며 10월 27일~10월 29일 창작곡 데모음원이나 가이드음원, 악보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02)2011-1744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도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청소년 등 작품 공모전' 을 열고 출품작을 모집한다. 한국 전통미와 예술성을 살린 전통행렬등과 창작행렬등을 주제로, 가로 · 세로 50cm 이내로 제작된 창작등을 사무실로 발송해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11월 12일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02)723-2571

올해 12회를 맞은 나란다 축제도 공모전 형태로 전환됐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매년 장학퀴즈, '도전, 범종을 울려라' , 불교교리 경시대회 및 댄스 경연 대회 등 신행축제의 형태로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8 유튜브 공모전 △영화감상문 · 감상평 공모전 △캘리그라피 공모전 △독후감 공모전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란다 축제를 상징했던 현장 퀴즈대회 등은 볼 수 없게 됐지만 공모전 형태의 비대면 전환을 계기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불교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교계 전반이 위축되긴 했지만, 포교원과 파라미타 등 관련기관과 연대를 통해 종단 포교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며 11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천태문화노리' 의 일환으로 전국 아동 · 청소년 만화공모전을 실시한다. 아동 ·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효의식과 다문화 화합, 환경과 복지 등 주제와 자유주제를 선택해 응모가능하며 10월 30일까지 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02)873-3405

천태종 광수사도 11월 12일까지 '제3회 광수문학상 공모전' 응모작품을 접수 중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창작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시 · 산문 분야를 선택해 출품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 25일 발표된다. (042)823-0332

이에 앞서 평창 월정사도 매년 진행해 온 오대산 전국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공모전으로 변경해 진행했다. 지난 8~9월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 · 산문과 미술작품을 접수받았으며, 10월 8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結社前夜 팔공산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광장에 80여 동의 텐트가 세워졌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순례단의 숙영 장소다. 21일간 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풍찬노숙을 한다. 결사입재를 앞둔 사전행사를 마치고 취침을 위해 텐트로 들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비장해 보인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난 극복 '500km 자비순례' 첫발 내딛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10월 7일 입재법회 봉행

동참 사부대중 82명 한마음
"코로나19 극복 기원" 발원
하루 30km… 21일의 대장정
진제 종정 예하, 입재 법어도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철저'
결사 대중 마스크 1만장 보시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희 밝히는 서원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10월 7일 입재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매일 30km씩 총 500여 km를 걷는 순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지역을 대표해 대구 동화사부터 서울 봉은사까지 진행된다.

동화사 통일약사대불보전 광장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원로의원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등 스님들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에서는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직접 증명법사로 참여해 법어를 내리고 순례단을 독려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2600년 전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사부대중은 생사의발을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고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나는 무엇이었는가는 화두를 안고 정진해달라"며 "신심을 갖고 용맹정진 하는 이만이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 자비순례에 동참하는 모든 대중이 일거수 일투족에 화두가 가득하길 바란다. 깨달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입재식에서는 사부대중을 대표해 비구 우봉 스님, 비구니 유승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윤정은 대불련 회장의 고불문 낭독이 이어졌다.

결사 대중은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맑게 걷어내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내어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축원하겠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며 국난극복을 강조했다.

500km 순례의 원만회향을 당부하는 사부대중의 기원도 이어졌다. 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장정을 시작하는 자비순례는 21일 동안 500km 걷는 국민정진이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에 나선 순례대중에 감사를 드린다"며 "만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1일간 매일 30km를 걷는 것은 신심과 원력 그 자체다. 이런 원력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은 "팔공영산에 시공을 초월하여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이 시연된듯하다.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두타행으로 성불하셨다. 두타 만행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자들은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식에서는 20여 교구본사가 만행결사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결사대중은 동화사 측에 마스크 1만장을 보시했다.

이후 결사대중들은 조별로 거리를 두고 동화사 일주문을 거쳐 백암삼거리와 지묘동, 강변리틀야구장까지 총 20km의 첫날 순례를 진행했다. 결사대중은 묵언 속에서 동화사 산문을 나섰다. 태화산 순례와 달리 이번 순례에서 대중들은 모두 '자비순례' 가 새겨진 모자를 썼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순례 행렬간 거리를 두고 진행됐다.

대구 동화사가 위치한 팔공산 중턱에서 첫 숙영지가 위치한 금호강변까지 결사대중이 거쳐간 20여 km 길마다 국난극복의 희망이 싹텄다.

순례를 지켜본 대구시민 김형종 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스님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백km를 걷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존경심이 우러러 나온다"며 "부디 만행결사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화합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노덕현 기자

〈관련 특집 2 · 3면〉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유 대종사
주 지 경선

범어사 사부대중 일동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